생각 없이 배불러도 괜찮다

(예레미야 4:1~31)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각 없이 배불러도 괜찮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생각 없이 배불러도 괜찮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의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쾌락에 의해 결정되는데, 쾌락은 단일한 것이기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다는 양적인 행복론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쾌락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분류를 합니다.
벤담이 말한 것처럼 행복은 단일한 한 가지 쾌락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차원적인 쾌락의 경우에는 양이 적더라도 대량의 저차원적인 쾌락보다 더 큰 행복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는 말은 사실 축약판입니다. 본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낫고, 배부른 바보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It is better to be a human being dissatisfied than a pig satisfied; better to be Socrates dissatisfied than a fool satisfied).'라는 말이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 다음으로 '만족한 소크라테스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말이 붙을 만도 합니다. 그런

데 배부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도중에 끝나버렸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함구하는 이유는 배가 부르면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주체성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소원하고 추진하는 등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만족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주체성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깊은 사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배부름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상태이지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TV에서 이효리 씨가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는 것이 배불러서 올라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존 스튜어트 밀의 말과 비슷합니다. 배가 부르면 말 그대로 배가 나오고 또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배부르면 짜증이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혈액이 모두 소화기관에 몰리기 때문에 뇌가 둔해집니다. 뇌가 활성화되려면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리기 때문에 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그저 편한 자세로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마음의 배부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만족하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배부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편 23편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풀밭에 누이신다고 했습니다. 양이 풀밭에서 잔뜩 풀을 뜯고 물도 마시고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엎드려서 되새김질을 시작합니다. 앞서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을 돼지에 비유했지만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없다는 점에서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르면 주체성이 비활성화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성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주체성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의 생각 없는 배부름에는 목자의 주체성이 개입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방치되어 있는 것과 달리 목자가 인도하는 배부른 양은 소크라테스는 아니지만 소크라테스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는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는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양처럼 목자가 있는 삶은 배가 부른데도 소크라테스와 같이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밝히는 배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너희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고 배부른 양이 되어라. 배가 불렀으니 너희의 주체성은 비활성화 되겠지만,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의 삶에 개

입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로워질 것이고 가장 멋진 생각을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셈입니다.
한편 오늘 예레미야에서 드러내는 문제의식은 이 좋은 복음을 선민들이 마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부르면서도 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선민들이 다 깨뜨렸습니다.
본문 4절부터는 특이한 단어와 구절들이 연결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난 지 팔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내듯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여자나 남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결혼에 비유하여 선민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별과 관계없이 여자로 비유였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성별에 관계없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18절에서도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괴팍하셔서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선민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민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선민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몸에 병이 나는 것처럼 삶 전체에 탈이 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고 흑암으로 말미암아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몰라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하며 마음의 할례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계속 되고 있기에 마음의 할례를 단순히 우상숭배를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증거로써 우상숭배가 표면에 드러났을 뿐입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섬겨지던 우상은 바알과 아

세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들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자 되는 것이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선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풍요와 다산이 곧 이들이 섬기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선민이든 아니든 마음이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고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즉 풍요와 다산을 통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기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근본원인인 풍요와 다산에 대한 추구를 마음에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어 말하자면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가족도 접하고 돈도 접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만나는 것들을 마음에서 붙들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고, 자녀가 형통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대상들은 마음과 단단하게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붙어버린 대상들은 결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배고픔이 계속되고 또 다른 대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했기에 자녀로 만족해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채워지지 않으며,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어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고 돈을 못 벌면 당연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허가 지속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주체성의 활성화입니다. 배고프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는 한 근본적으로 하나님 크기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며 주체성을 활성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은 채워질 수가 없기에 삶은 혼돈과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심지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마음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기에 더욱 혼돈스럽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으니 이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체성이 활성화될수록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내리시면서 선민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할례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의 다른 신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나 돈이나 건강 혹은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붙어버린 마음을 십자가

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주어진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대로 만들어진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면 주체성이 사라집니다. 만족하면 더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배부른 돼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배부른 양이 됩니다. 나의 주체성이 꺼지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족하게 되었다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소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과 소원이 죽은 자리에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소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러한 삶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만족하려니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체성은 자꾸만 활발해져 가는데 정작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니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라고 하신 대로 선민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괴팍한 진노 탓이 아닌 선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기 때문임을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억지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고,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은 질적 쾌락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결국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한계에 갇혀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의 개입을 알지 못하기에 배부른 소크라테스적 삶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합니다.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 내 판단 대신 하나님의 판단, 내 소원 대신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 내가 끼어들어 애를 쓸수록 삶은 혼돈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한 바울처럼 어디에서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원죄의 체질 때문입니다. 몸으로 대하는 세상의 대상들이 자꾸만 마음에 담깁니다. 마음에 담기면 그것들을 붙잡고 생각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내 주체성이 활성화됩니다.

그 대상이 원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만족을 방해하는 원수를 갚든 없애든지 해서 만

족을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들어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체성이 생겨납니다.
뉴스를 보면서 '나라꼴이 이게 뭐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말 한 마디에도 만족을 위해 생각하고 비판하는 과정이 담겨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뉴스를 보면서도 내 마음에 들어오려는 세상 것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역할을 위해 성전에 상번제의 번제단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마음에 붙은 세상을 잘라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밀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목자가 인도하는 배부른 양이 될 것입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멋진 판단과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삶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양이 될 때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생각과 판단과 지혜로 가득 찬 삶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놀랍습니다. 아담이 망가뜨린 삶이 십자가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적 삶이 가능한 복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